독서클럽 모임 보고서 - 성북구서점교재파괴자

1주차	일시	3월 20일 오후 1시~오후 3시 상상관 지하 2층 상상베이스 IB106호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백은빈/2431166	O
		고명규/2371382	O
		한상수/2471064	O
		조명환/2431174	O
	진도	도서명 : 로마인이야기 4권	진도페이지: 1p. ~ 42p.
	토론 내용	 [좌측부터 조명환,고명규,한상수,백은빈]	

활동 1 - 개괄적인 책소개 및 팀이름소개
은빈 : 로마인 이야기 4권은 율리어스 카이사르의 유년기부터 중년기를 넘어 갈리아 전쟁기까지 담은 책인데 당시 로마의 시대상이나 정치 체재등을 배울 수 있고 남녀노소 빠져들 수 있는 카이사르의 매력을 같이 느끼고 싶어서 이 책을 선택했다

명환 : 팀 이름이 성북구서점교제파괴자인 이유는 성북구는 우리 학교가 위치한 지명에서 따왔고, 교제파괴자의 의미는 글은 입에서 입으로 또는 같은내용이 여러권의 같은 책으로 세상에 널리 퍼지기에 분서갱유처럼 단순히 책을 물리적으로 없엔다고 책이 파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진정한 의미로 글을 파괴한다는 것은 다시 읽을 필요가 없을 때 까지 그 책을 읽어 내용을 완전히 숙달하여 그 책을 쓸모없게 만드는것 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책을 모두 읽어 쓸모가 없어질 때 까지 독서활동을 이어가자는 의미로 지었다.

활동 2 - 개괄적인 소개에서 들었던 내용중에서 토론해보고싶은 논제 정하기
명환 : 카이사르가 갈리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핵심전략은 무엇일까
상수 : 내가 로마의 유력자라면 민중과 원로원이 대립한다면 누구편을 들어줄 것인가
명규 : 카이사르 군단도 결국 겨울을 보낼 텐데 어떻게 겨울을 지낼 수 있었을까
은빈 : 당시 카이사르와 같은 로마군의 전략은 무엇일까

활동 3 - 얘기했던 논제중에서 실제로 토론하기
Q1 카이사르의 갈리아 정복기의 핵심전략은?
명환 : 당시 로마의 우수한 생활양식이나 먹을것 등 발전한 문물로 갈리아인들을 유혹했을 것
명규 : 손쉽게 이길 수 있는 외부지역부터 차근히 공략하여 몸집을 키워나갔을 것
상수 : 일부 갈리아인들을 매수하여 여러민족으로 이루어진 갈리아인들을 내분시켰을 것
은빈 : (정답공개) 가장 큰 세력을 가지고 있던 하이두이족과 결탁해 주변 부족을 견제

Q3 카이사르군단이 주위에 포위되었을 때 겨울을 효율적으로 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명환 : 주변 우호적인 갈리아인들에게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식량을 보급받는다
명규 : 적들을 뚫어 보급로를 세운다
상수 : 적들을 뚫어서 보급로를 세운다2
은빈 : (정답공개)장기전을 계획하고 농사를 짓는다

2주차	일시	3월 27일 오후1시~오후3시 학술정보관 5층 그룹스터디실	
	참여 학생	클럽원 정보	참석 여부
		백은빈/2431166	O
		고명규/2371382	O
		한상수/2471064	O
		조명환/2431174	O
	진도	도서명:로마인이야기 4권	진도페이지: 44p. ~ 132p.
	토론 내용	[좌측부터 백은빈,한상수,고명규,조명환]	

활동 1 - 자신이 읽었던 부분에서 인상깊었던 부분 발표
명환:3장에서 114페이지 카이사르가 해적에게잡혔을 때 자신의 몸값을 오히려 비싸게 올리고 해적들에게 나중에 너희들을 죽여버린다고 하고 그것을 실제로 실현한게 인상깊었다
은빈:63페이지 18세 카이사르에게 술라가 이혼한후 자신이 정해준 여성과 다시 재혼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무시한게 술라가 정적이고 본인을 죽이려고 히고있는데 이에 굴하지 않고 술라의 요구를 거절한게 정말 대단하다고생각했다
상수:63페이지 위와 마찬가지로 카이사르가 술라의 명령을 거절한게 아무리 절대권력자라도 자신의 사생활을 간섭할수 없다고 생각한게 인상깊었다
명규:63페이지 마찬가지로 위의장면에서 술라의 명령은 거절했으면서 킨나의 딸과 결혼하기전에 원래 약혼자와는 왜 파혼했나 궁금했다

활동 2 - 토론을 해보고 싶은 논재 얘기하기
명환 : 키케로의 변론스타일과 카이사르의 변론스타일중 어떤 것이 사람을 설득하는게 좋은가?
상수 : 카이사르의 이름의 유래가 코끼리라고하는데 별칭이 가문의 이름이 되는게 흔하다고 했는다 카이사르이외에 별칭이 가문의 이름이 되었던겡게있을까?
은빈 : 술라파가 다시 돌아와서 숙청할 때 살생부를 만들었는데 살생부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여 안정된 정치가 오래갈 수 있을까?
명규 : 카이사르가 술라의 제안은 거절했지만 킨나의 제안은 받아들여서 정략결혼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

활동 3 - 얘기했던 논제중에서 실제로 토론해보기
논제 : 술라가 살생부로 자신의 정적을 제거해서 피의정치를 한 반면 카이사르는 자신의 적을 용서했다 두사람의 정치중 어떤 방식이 통치에 적합한가?
은빈 : 술라가 제거한 정적들의 자식이나 미처 제거하지 못하는 적들이 나중에 더 큰적이 되므로 적들을 포용하는 카이사르의 정치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한다
명규 : 결과론적으로 보면 술라는 말년까지 잘 살다가 죽지만 카이사르는 결국 배신을 당함으로 포용은 한계가 있기때문에 내가 술라였다면 확실하게 술라의 정치를 할 것이다
명환 : 술라의 정치가 무너진것은 술라가 죽고 술라파였던 이들의 정치력의 문제이지 술라가 살아있었다면 공화정이 무너지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하기에
상수 : 세계역사로만봐도 공포정치,피를 흘리는 정치가 실패한 케이스가 훨씬 많으므로 술라의 정치보단 카이사르의 정치가 좀더 정당한 것 같다
명환 : 술라의 정치는 민중을 압박하지 않았고 세계역사에서의 공포정치는 민중을 압박한 케이스가 많았으므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은빈 : 힘으로 시작한 권력은 힘으로 끝나고 포용으로 시작한 권력은 포용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이사르가 좀 더 맞는것 같다
명규 : 카이사르의 경우를 살펴보면 포용으로 시작한 권력은 배신으로 끝났기 때문에 틀린말이다
명환 : 책에서도 요즘 역사학자들까지 카이사르의 적이 폼페이우스가 아닌 술라였다면 결과가 어땟을까라고 토론하는 만큼 술라의 정치력이 대단했기때문에 술라의 정치가 좀 더 나은 것 같다

<table>
<tr><td rowspan="8">3주차</td><td>일시</td><td colspan="2">5월 8일 오후 1시~3시 상상베이스 IB106호</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조명환(2431174)</td><td>O</td></tr>
<tr><td>백은빈(2431166)</td><td>O</td></tr>
<tr><td>고명규(2371382)</td><td>O</td></tr>
<tr><td>한상수(2471064)</td><td>O</td></tr>
<tr><td></td><td></td></tr>
<tr><td>진도</td><td>도서명: 로마인 이야기 4권</td><td>진도페이지 : 133p. ~ 560p.</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백은빈,한상수,임형모 교수님,고명규,조명환]

활동 1 - 읽었던 내용중 인상깊었던 부분 말하기
은빈 : (1) 카이사르 15개 대대 궤멸 -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기지를 발휘해 적에게 대항한게 인상
(2) 브리타니아 침공 : 원로원의 말을 무시하고 뛰쳐나간게 진취적이어서 인상깊었다
(3) 삼두정치 : 공화정이었던 정치가 중앙왕정의 형태로 나아가는게 인상깊었다
상수 : (1) 장래행렬에서 마리우스의 초상까지 참가시켜 민중파를 재건하려고 한게 멋있었다
(2) 카이사르가 식량문제가 있었음에도 헬베티족의 도전을 당당히 받은다음에 이긴게 멋있었다
명규 : (1) 원로원에서 있던 일은 원래 비밀이었는데 그걸 써붙이므로써 발언을 주의시키고 원하는 것을얻었던 지혜가 놀라웠다
(2) 카이사르가 폼페이우스와는 달리 집정관 자리를 수단으로 자기가 이루고자하는 것에 대한 야망심을 보인 것이 멋있었다.
명환 : (1) 카이사르의 아내에 대한 스캔들이 터졌을 때 상대편이 지적한 것에 대해 카이사르가 “카이사르의 아내되는 여자는 의심조차 받아선 안된다고 말한부분이 자부심이 느껴져 인상깊었다
(2) 카이사르가 7,8,9,10군단은 본인이 직접뽑은 부대가 아님에도 잘 활용하여 전쟁을 성공적로 마친게 인상깊었다.
(3) 카이사르한테 문제를 말하면 선처하겠다고 하는데 현대 정치인들의 선처와 비교가 되어서 인상깊었다

활동 2 - 카이사르의 15대대 궤멸사건처럼 자기가 부사관의 지위에 있을 때 상관이 부대를 궤멸시킬 정도의 잘못된 판단을 내렸을 때 자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토론
은빈 : 상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리면 더 위에있는 상관의 명령을 우선시해서 어떻게든 막을 것 같다
명환 : 상관에게 대들경우 목숨을 위협당할 것 같아 따르는 척 하면서 자신의 목숨을 보전할 수단을 찾는다
명규 : 군인이라면 시키면 하는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상관의 말을 무조건 따르나 더 위의 상관의 명령과 반대 된다면 더 위의 상관의 명령을 우선시 할 것 같다
상수 : 상관이 틀린건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직접적으로 명령이 온거니깐 일단 따른다</td></tr>
</table>

<table>
<tr><td rowspan="8">4주차</td><td>일시</td><td colspan="2">5월 22일 오후 1시~3시 상상베이스 IB107호</td></tr>
<tr><td rowspan="6">참여 학생</td><td>클럽원 정보</td><td>참석 여부</td></tr>
<tr><td>백은빈(2431166)</td><td>O</td></tr>
<tr><td>조명환(2431174)</td><td>O</td></tr>
<tr><td>한상수(2471064)</td><td>O</td></tr>
<tr><td>고명규(2371382)</td><td>O</td></tr>
<tr><td></td><td></td></tr>
<tr><td>진도</td><td>도서명: 로마인 이야기 4권</td><td>진도페이지: p.561~ p.822</td></tr>
<tr><td>토론 내용</td><td colspan="2">

[좌측부터 백은빈,한상수,임형모 교수님,고명규,조명환]

활동 1.인상깊었던 부분 이야기하기
백은빈 : 알렌시아 공방전에서 카이사르가 앞뒤로 적에게 포위당했음에도 모든 적을 처치하는 최초의 업적을 당성한게 인상깊었다.
한상수 : 카이사르가 갈리아 연합군과 싸울 당시 불리한 지형조건에서 싸우지 않고 병사를 잘 다스려서 자신의 명예보다 부하들의 목숨을 중요시한게 멋있었다.
고명규 : 카이사르가 라비에누스의 배신을 알고도 오히려 짐을 보내주었다는 부분에서 카이사르의 관대함이 인상깊었다
조명환 : 카이사르가 자기파의 인재를 영입할 수도 있었는데 오히려 반대파의 떠오르는 인재인 쿠리오에게 몰래 접근해서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인게 인상깊었다.

활동 2- 토론하기
논제 - 카이사르가 반로마파 족장들을 잔인하게 숙청한 것은 괜찮은가??
고명규 : 영화 브레이킹 베드에서 “공포는 효과적인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처럼 공포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백은빈 :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효과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베르킨게토릭스의 경우처럼 큰 업보가 되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한상수 : 술라의 공포정치처럼 빠르게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이기에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조명환 : 카이사르는 갈리아 뿐만 아니라 로마내부도 챙겨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빠르게 갈리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고 숙청을 하지 않았다고해서 궐기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td></tr>
</table>

	No.	클럽원 정보	후기 내용
활동 후기	1	고명규 (2371382)	처음에 책을 정할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팀원들과 책을 같이 읽어나가면서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궁금해졌다. 카이사르의 소년 시절, 성인 시절, 그리고 4권 마지막 루비콘 강 도하까지 카이사르의 업적 그리고 카이사르의 재능과 지혜 로마 집정관 자리에서의 능력들 사람을 부리는 방법들 여러가지로 알게 되었다.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밀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쯤이면 카이사르는 자신의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다.이러한 매력이 이 책을 읽게하는 원동력이 된 것 같다. 또 책을 읽으면서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토론을 하는 시간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어 책, 더 나아가 카이사르라는 사람에 대해 더욱 매력을 느끼게 한 것 같다.
	2	백은빈 (2431166)	개인적으로 역사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써 카이사르라는 인물에 대해 독서클럽을 통해 더 자세히 잘 알 수 있었다. 특히 팀원들과 함께 카이사르와 동반된 로마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같이 토론하고 논제를 말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역사적 배경지식과 원리를 더욱이 잘 이해할 수 있었다. 특히 로마인 제 4권은 카이사르의 일생의 60%를 알 수 있었는데 카이사르가 한 모든 정책과 전쟁, 군사 전략등 이러한것들을 친구들과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 나눈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개인적으로는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에 관해서 토론할때 갈리아 정복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 옳은 것인지 판단하는 점이 가장 재미있었다.
	3	조명환 (2431174)	로마인 이야기 4권은 카이사르의 탄생부터 전성기직전까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읽으면 읽을 수록 어째서 역사가들이 카이사르에 열광하는지를 깊게 공감하게 되었다. 카이사르의 인생관, 여성편력, 전술, 인성, 사생활등을 보면 상남자라는 생각이 절로들게 된다. 카이사르 이외에도 로마의 생활양식이나 식생활, 전술들을 공부할 수 있어서 로마라는 나라에 대해 더 잘 알게되었으며 팀원들도 누구하나 불성실한 사람없이 잘 참여하고 토론에 있어서도 다양한 의견을 말해주어서 정말 보람찬 활동이었다고 생각한다.
	4	한상수 (2471064)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잘 몰랐던 인물인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를 접하게 되어서 재밌었다. 카이사르가 유명 인사가 되기까지 많은 위험과 노력이 있었고 무엇을 하든 한 가지만 보는 것이 아닌 여러가지를 챙기려고 한다는 것도 인상깊었다. 또, 카이사르는 전쟁에서 어떤 조건이든 훌륭한 지휘를 통해서 불리한 상황 속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 최선책을 잘 선택하고 작전을 잘 짜는 것을 보아 훌륭한 지휘관이라고 생각하게 됐다. 부하들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는 것에도 인상깊었고 이 다음의 카이사르의 이야기와 로마 이야기에 대해서도 흥미를 갖게 됐다.
	5		